

What the Bible Says About Music

성경은 음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KJ 도서 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Bible Publications





What the Bible Says About Music

By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2014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성경은 음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지 은 이 | James W. Knox

옮 기 이 | 안성식

펴 낸 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7년 01월 20일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 6. 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화번호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com

표지사진 | 안성식

표지디자인 · 편집 | 장한디엔피

ISBN 978-89-89741-85-5

정가 3,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음악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음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물어 봄으로써 아주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해 보실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론 캠펠랜드, “음악에서 무엇을 듣는가” 중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음악

저는 여러 교회들을 옮겨 다니면서 성경적 기독교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고전12:6)는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아주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다니던 교회와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분들이 모든 것에는 오직 하나의 옳은 길만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타협하는 자들이거나 진리를 대적하는 혹은 진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통된 특성을 지닌 각기 다른 수많은 새와 꽃과 동물과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도 이와 같이 다양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저의 교사들에게나 저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날개와 깃털을 갖고 부리와 다리가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입니다. 새는 왜가리처럼 키가 크고 하얗 수도 홍관조처럼 작고 빨갈 수도 있고 펭귄처럼 포동포동하고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또는 타조처럼 키가 크고 길쭉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새입니다. 어떤 것은 날고, 어떤 것은 달리고 어떤 것은 뒹뚱거리지만 여전히 그들은 새입니다. 로드러너와 대머리수리는 공통점이 거의 없지만 동일한 과(family)에 속합니다.

이제 교회들을 보십시오. 한 교회는 구령을 강조하고 있고, 둘째 교회는 버스로 사역하는 일을 하고 있고, 셋째 교회는 성가대를 자랑스러워하

고 있고, 넷째 교회는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집들을 돌아다니며 문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하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 일을 위해 쏟아 붓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옳을까요? 그들은 모두 동일한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은 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것에 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그대로 해야 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말씀하시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선교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장소나 자금조달 방법이나, 어떤 건물을 세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카펫 색상, 예배의 순서, 조명의 종류, 헌금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의 질서와 설교의 형태나 강조하는 점, 가르치는 방법, 행정 통치와 지역교회의 구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점들을 섞어가며 조율해 갈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음악의 문제에 관해서 더 명확한 진리는 없습니다. 저는 최근 3주 동안 여덟 개의 주에 있는 아홉 개의 교회를 둘러 보았습니다. (그 동안에 두 번이나 교회로 돌아와서 목회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에는 북쪽에 있는 한 큰 도시에 있는 매우 크게 부흥한 교회

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뜨겁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위로 들고는 주님을 드높이고 있었습니다. 연주자들은 수준 높게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타나 베이스 기타 같은 세상의 쓰레기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틀 뒤 일요일에 저는 애플래치아 산맥에서 큰 부흥이 일고 있는 어느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신의 말씀으로 풍성한 축복을 주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담아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을 드높이고 있었습니다. 연주자들은 수준 높은 실력으로 오르간과 기타와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는 “할렐루야, 우리는 무겁고 도시적인 오케스트라 음악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에게도 선배들에게서 배운 알량한 지식만이 전부인 양 남을 판단하고 불평만 일삼던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찬양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저런 불경스러운 음악을 어떻게 받아 주시겠나 비아냥거리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각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것이 이리도 기쁠 수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공공장소에서 설교를 하면서 저 역시 많은 욕을 먹고 온갖 수치를 경험해 보면서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성경 구절을 내 사건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육신적이고 어리석은 악행을 벗어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음악에 관한 각자의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의 의견을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신념이 있으니 하나님은 옹당 우리 편이며 우리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질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게다가 그 중 일부는 그 신념을 표준이라고까지 부릅니다. 표준은 신념에서 더 나아가 다른 모든 의견과 신념들을 측정하는 잣대 역할까지 할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 음악에서 당김음이 쓰인 부분을 찾아 내고는 이러한 모든 음악은 죄다 마귀의 음악이라고 으스대며 주장하던 한 남자를 여러 차례를 걸쳐 만나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에서는 독특한 스타일의 음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교만과 죄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내가 방문하기 전부터 이런 입장을 저에게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리틀 리처드와 제리 리 루이스가 만들어서 대중화한 스타일로 피아노를 절묘하게 연주할 때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음악 자체는 즐겁게 감상했지만, 당사자가 교회 밖에서는 자신의 평소 지론과 완전히 어긋나는 음악을 어떻게 용납해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이러한 차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5:20을 보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emulation)을 금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는 오케스트

라가 있는 반면 어떤 교회에는 피아노 하나만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오르간을 주로 사용하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이것이 보조 악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특수한 음악을 사용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회중용 음악만을 사용합니다. 어떤 교회는 책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만이 안전하고 건전하다고 여겨서 찬송가 중에서만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교회는 합창으로 부릅니다. 어떤 교회는 아카펠라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에 도달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음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지지하는 열 개의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거나 당신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음악이 무엇인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스무 개의 구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음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으셨는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화를 낼 겁니다. 만약 제가 그에 맞서 다윈을 지지하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가 있다고 말하면서 대응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성경만을 신뢰합니다.” 좋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 복음주의를 버리고 칼빈주의자가 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화를 낼 겁니다. 만약 많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지금의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연구 결

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신뢰해야 한다고 할 겁니다.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시끄러운 록음악이 토마토의 발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서 숙제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도 방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할 겁니다.) 나는 모든 연쇄살인범의 어머니가 어떻게 최소한 한 장 이상의 베리 마닐로(Barry Mannilow)의 앨범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미로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게 해 줄 쥐 한 마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나는 쥐에게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를 물어 볼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음악이 미로에 빠진 혼란스러운 쥐를 놀랍도록 신비롭게 만들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사실 성경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찬양이나 음악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음악, 악기, 찬양 그리고 춤과 관련한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구절을 찾아 인쇄해서 나누어 주고 그것들을 함께 읽는다면(제가 해 봤던 것처럼) 여러분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이 모든 구절들의 배경에 깔린 압도적인 생각은 음악과 찬양은 하나님 또는 사람을 향한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성경 구절들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빠르기, 박자, 선율, 양식, 풍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프가 어떤 악기인지 분석할 때 우리의 성향과 경향에 근거해서만 이 악기가 어떻게 연주되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던 잘 훈련된 찬양 단원들에 관해서 읽을 때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다는 방식으로 그들이 실제로 멜로디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관념을 근거로 그들의 노래하는 방식을 추정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앞서 이야기한 사실들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우리의 의견을 지지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진리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여러분도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드셔야 하고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다양한 방법의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자유로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고전12:4-7)

성경적 용어

음악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권위역에서는 철자를 “k”를 추가해서 musick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16번 나오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악기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첫째로 음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돌아올 때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여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기쁘게 찬양하고 춤추는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음악이란(연대순이 아님) 당신이 춤을 출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춤을 추는 매개체였음을 말해야겠습니다. (삼상 18:6).

춤이라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취해서 우리의 교회를 댄스 클럽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리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요.

다음 참조 구절을 보면 다윗 왕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악기와 타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레위인 남성 합창단이 크고 기쁘게 노래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15:16)

역대하 5:13에서 우리는 이 임무가 관악기(트럼펫)가 추가되어서 수행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은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매 그때에 그 집 곧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하였다**”고 말하면서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나는 감히 우리 모두가 그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급여를 받는 전임 전문 가수들이었고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스라엘을 이끌

기 위해 고용한 음악가들이었습니다. (대하7:6) 여러분은 공정하고 정직해질 수 있으신가요? 모든 직업적인 전문 가수들과 음악가들이 주를 찬미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음악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죄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역대하 23:13에서 이런 전문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이 악기를 배우기도 했다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숙련된 기술이 있으신가요? 내 아내와 동생은 좋은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몇몇 남성과 여성 그리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청력 감퇴와 인생에 대한 고뇌로 인해 음악에 대한 관심을 잃는다고 합니다(전12:4, 애5:14, 삼하19:35). 아니면 이럴 때 노인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세상은 경배와 관련하여 음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4개의 관련구절)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여가 시간에 음악을 들었습니다.(암6:5)

성경에서 음악이라는 단어의 마지막 용례도 첫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방탕했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형은 들에 있었고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눅15:25) 첫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기쁨과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기도 했던 것

입니다.

제가 단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한 것 때문에 불쾌해하고 화를 내며 이 글을 읽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나 사람 그 어느 누구라도 이들을 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를 악마의 자식이고 심지어 그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구원받은 몇몇 사람들로부터 악담을 담은 편지를 받습니다. 이러한 편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성경의 진정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진정한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지나칠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춤추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 읽기를 멈춘 사람들은 콜리앗이 쓰러진 내용이나 탕자의 귀환에 대해 읽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그들의 춤 실력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된 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들 자신이나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만 사용하며 성경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부분은 경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악이라고 언급하신 첫째와 마지막 율례는 사람들이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춤을 추지 않지만 자신의 기준이 성경적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격앙되고 불쌍한 사람들의 생각에 간혀 있기보다는 춤을 추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적(*musical*)이라는 단어는 음악적 악기라는 표현으로 세 번 사용됩니다. (대상16:42, 느12:36, 전2:8)

노래(sing)라는 단어의 성경적 용례는 119번 나옵니다. 17개의 관련구절은 주님을 향해 노래로 부르짖는 용례로 사용됩니다. 30번은 찬양을 부르고 세 번은 시편을 노래합니다. 50번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즐거움(gladness)과 (렘31:7), 감사함과(시147:7), 영과 함께 이해하면서(고전14:15) 그리고 크고 기쁨에 찬 소리로 요란하게(시67:4) 큰소리로(시51:14)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래는 반주와 함께 불려진 경우도 있고 반주가 없이 불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구절이 여럿 있음) 어떤 사람은 노래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발성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하23:13) 나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악보를 보고 화음을 넣는지를 가르치는 훌륭한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노래한 사실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연대기 순서와는 다름)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것을 찬양하면서 미리암이 부른 노래입니다(출15). (이하 서정적인 내용의 메모를 보십시오) 마지막 참고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절입니다.(계15:3)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구출해 주심과(삿5:3), 그분의 이름과(시9:2), 그분의 후히 주심과(시13:6), 그분께서 물을 공급해 주심과(민21:17), 그분의 의로우심과(시51:14), 그분의 권능과 공화하심과(시59:16), 그분이 하시는 일들과(사12:5), 그분의 공의로우심과(시101:1), 그분께서 양식을 공급하심과(시65:13), 그분의 위엄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분께 찬양을 노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다”의 과거형인 “sang”이라는 단어는 열한 번 사용되었고 과거 완료형인 “sung”은 다섯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 노래(new song)라는

언급이 구체적으로 아홉 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기존 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매주 일요일에 같은 노래를 다섯 번씩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노래라고 해서 이 노래는 사탄의 음악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혼자 노래하는 자(대상6:33),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합3:19), 둘이 노래하는 자들(행16:25)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회중이 다같이 노래하는 것 이외의 찬송에 대해 반대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에서 발견되는, 모든 경우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노래하다”라는 동사의 다양한 변형이 성경에 271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선포하다(preach “설교하다”로도 번역 될 수 있음)”라는 동사의 다양한 변형은 122번밖에 안 나옵니다. 뭔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모든 세대에 거쳐 음악은 누군가의 경배 대상을 찬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 대상은 진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거나 우상(단3장, 출32장)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솔로몬의 아가)이거나 상품과 재물이었습니다(겔2:25). 노래는 전투에서도, 경배하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길에서도 발견됩니다.

악기

성경 본문에 언급된 악기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용된 용어를 살펴보고 이러한 용어들 안에서 다양함을 받아들인다면 바빌론 포로 시대애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관현악 연주가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악기들은 오늘날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세 가지 부류인 현악기, 관악기(금관악기와 목관악기를 포함), 타악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악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올은(사5:12; 14:11, 암5:23; 6:5) 바이올린과 첼로의 전신이었습니다. 여섯 줄을 갖고 있는 이 악기는 활로 연주되었고 원하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하프라는 악기를 생각할 때면 누군가 의자에 앉아서 커다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하프는 삼각형 모양에 줄을 달아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모든 악기를 말합니다. 크기는 현대의 자동하프 크기와 같은 형태에서 위에서 언급한 커다란 하프까지 다양합니다. 하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50번 언급이 됩니다.

비파에 관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악기를 제작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악기는 현악기라는

것과 하프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파는 오늘날의 만돌린과 같은 모양에 만돌린보다 두 배가 많은 줄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줄 받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파는 덜시머(줄이 달린 타악기)를 연주하듯이 줄을 함께 치거나 한 줄 한 줄 튕기거나 그리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연주되었을 겁니다. 더블베이스나 기타(Guitar) 목이 두 개로 된 전자기타를 연주하는 기타리스트는 자신이 고전 악기를 현대화시킨 악기를 연주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러한 언급은 성경 본문에 27번 나옵니다.

트럼본(sackbut)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현대 관악기가 아니고 하프와 비슷한 현악기였습니다.

시편 33:2, 92:3, 그리고 144:9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열 줄 달린 악기가 나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악기를 창안했다고 한 것을 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암6:5)

이번 분류에서 마지막은 덜시머(줄이 달린 타악기)일 겁니다. 영어 단어 dulcimer는 이탈리아어인 감미롭다는 dolce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악기는 작은 쇠팅치나 나무팡치로 줄을 쳐서 연주하는 나무로 된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오늘날 볼로그래스(기타와 밴조로 연주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컨트리 음악)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폭이 좁은 바이올린의 크기인 작은 형태의 크기에서부터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까지 다양한 형태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악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트럼펫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관악기입니다. 이 악

기는 긴 관의 몸통이 둥글게 말려서 나팔 모양으로 넓게 벌어진 주둥이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집회의 호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 악기가 커다란 소리를 낼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피리(삼상10:5, 눅7:32 등)는 오보에나 바순과 같이 나무나 금속의 긴 관으로 되어있는 모든 크기의 악기를 말합니다. 이 악기의 다양성은 끝이 없습니다.

코넷은 클라리넷과 다른 악기로 트럼펫과 같이 금속 악기이면서 오늘날의 프렌치 호른과 같이 둘둘 말린 모양의 악기입니다.

플루트(다니엘서 3)는 몸통 관에 구멍들과 덮개들이 있어서 입으로 바람을 불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열고 닫으면서 연주하는 작은 피리입니다.

이 그룹에서 마지막 악기는 오르간입니다. 이 악기는 손가락이나 발이나 혀로 마개를 건드려 바람을 채워 넣거나 막는 관들이 있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의 목적은 가수들이나 다른 악기들에 맞추어 반주를 하면서 화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커다란 파이프 오르간과 손에 들고 하는 아코디언이 다양성의 양 극단의 예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오르간은 초라한 하모니카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타악기가 있습니다.

작은북(timbrel)은 두드리는 모든 형태의 악기였습니다. 이 악기는 손이나 막대기로 칠 수 있도록 나무 위에 가죽을 잡아당겨 놓은 형태였을 수도 있고 나무와 금속의 조각을 함께 두드리는 형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심벌즈는 오늘날의 형태와 같은 둥근 금속 물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cyma라는 단어는 위쪽이 오목하고 아래쪽이 볼록한 형태를 가리키는 건축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심벌즈라는 단어의 기초가 됩니다. 이 악기는 속이 비었고 낮으로 만들어졌고 둥글고 한쪽 끝이 다른 한쪽보다 큰 악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박자를 유지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크기의 모든 악기입니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숨씨 있게 연주하라”(시33:3)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사랑했던 훈련된 음악가와 가수들의 손에 이러한 악기들이 들려 있는 것을 마음에 그려 보십시오. 이런 모습은 아름답고 놀라운 것일 뿐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익숙해져 있거나 친숙한 모습 그 이상일 겁니다.

만약 당신과 제가 교회에 가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더니 강단에는 음악인들로 가득 차 있고 이미 기술된 성경의 악기들이 놓여 있었다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악기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나는 어떤 것도 우리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역대기상 13:8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놓고 노래하며 하프와 비파와 작은북과 심벌즈와 나팔로 연주하니라.”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3000년 전이라면 우리는 이런 것을 즐겼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윗이라는 이름 대신에 목사 조(Joe)라는 이름을

놓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동료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음악은 믿음이 약한 형제나 자매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한 반항적이고 자기도취적인 형태의 음악을 하도록 우리의 젊은이들을 부추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그리고 진심으로 다양한 소리의 여러 악기와 함께 연주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에 반하는 것일 겁니다.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눈에 띄는 음악적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15-18, 23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귀의 영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사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삼상16:15-18)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하온즉 이제 우리 주는 왕 앞에 있는 왕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사 숨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왕에게 임할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오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제 나를 위해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해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라. 그때에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 그는 숨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알고 또 강하고 용맹

한 자요, 전사요, 일에 분별력이 있으며 단정한 자니이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하더라.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기록된 그대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음악이 마귀의 영들을 억제하고 내쫓고 공격하고 또는 격분하게 하는지를 제멋대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교리적 진리를 세우는 비약을 하는 것은(그런 사람들이 많더군요.) 기껏해야 억측이며 최악의 경우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현대 음악에 관해 기독교 책들이 다루는 공통된 주제는 이렇습니다.

- A. 사울은 깨끗하지 못한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B. 다윗은 고전 음악을 연주했고, 그 깨끗하지 못한 영이 제압되었습니다.
- C. 그래서 나는 그런 종류(=고전 음악)의 음악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여러분의 불결한 영이 실제로 쫓겨났던가요?!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논쟁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사역자들의 신념에 맹종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능을 사용해서 성경말씀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휴대용 하프를 연주해서 영들을 쫓아내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일회적인 사건이 교리나 명령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나무의 껍질을 벗겼고 그것들을 물구유에 놓고 이것이 최상

의 소를 낳는지를 보았습니다.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은 성경적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농장에 있는 소들은 그 실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음악을 사용한 유사한 사례가 열왕기하 3:15-18에 있습니다. 대언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악 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소서, 하니라. 음악 하는 자가 연주할 때에 주의 손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터이나 그렁에도 저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것은 주의 눈앞에서 단지 작은 일이며 그분께서 모압 족속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즉”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거룩한 음악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예배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들이 특정 형식의 음악을 듣는 것이 초자연적인 힘이나 영적인 안목 또는 예언의 능력이 주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은 겉옷을 입고 대역배우처럼 따라만 하면 불마차가 내려와서 여러분을 붙잡아 하늘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엉뚱한 이야기가 됩니다.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의 엄청난 장면은 어떨까요? (대하5:12-14) “또 노래하는 자들인 레위 사람들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또 흰 아마 옷으로 차려입고 심벌즈와 비파와 하프를 가진 채 제단의 동쪽 끝에 서 있던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나팔로 소리를 내는 제사장 백이십 명도 그리하였더라.) 나팔 부는 자들

과 노래하는 자들이 한 사람처럼 한 소리를 내어 들리게 하고 주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이 나팔과 심벌즈와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여 이르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하매 그때에 그 집 곧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실로 영광스러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세가 창조의 순간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도 과거의 시간들에 있었던 위대한 사건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희망하는 마음은 저와 같겠지요?

물론 우리는 음악이 잘못 사용되었던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황금 송아지 사건,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위한 악단의 연주 그리고 마가복음 6:22에서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대가로 요구하면서 춤 춤이 눈에 띄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 또는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음악이 악의 원천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도구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특정 형태의 악기가 잘못되었다거나 그것의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말씀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음악, 어떤 빠르기, 어떤 박자와 멜로디 형태가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마귀적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노래하고 연주하고 춤을 춘다는 것은 마음이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마음이 올라가지 않을 때는 상처를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구절들

이번에는 찬양 또는 음악과 관련된 신약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구절이 많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30과 마가복음 14:26을 보면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올리브 산으로 향하기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설정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노래하셨다. 그분은 찬송을 불렀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과 노래했다.

그들은 다가올 고통을 직면하면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직접 읽고 들은 것 외에 다른 모든 이야기는 추측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지만, 본문에는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음악 반주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주가 없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맥은 음악 악기가 교회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힌 두 명의 사역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투옥은 그들의 혼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6:25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매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분명히 우리 주님은 밤중에도 노래를 주셨습니다.(시42:8)

다음으로 로마서 15:9에서 이방인들이 주를 신되었다는 것을 듣고 하나

님의 백성이 찬송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롬15:9)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음악과 관련된 첫 지침은 찬양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15에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들에게나 우리 자신에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찬양을 불러야 한다고 명확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배우는 영의 노래는 이해할 수 있는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전14:15)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교회가 이 주제에 관해서 갖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에베소서 5:19과 골로새서 3:16에서 일치된 내용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엡 5:19).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골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첫째 구절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이 사람과 하나님 모두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음악을 사용해서 그 힘을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율을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의 사랑과 찬미와 사모함과 관심 등을 주님을 향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선율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의 노래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찬양은 지혜가 잘 나타나야 하고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께 관한 것을 배우거나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 어디에도 음악의 종류나 그것의 빠르기나 또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르는 사람의 마음과 노래의 목적과 그 가사의 내용에 있습니다.

“시”라는 단어는 시편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열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고대언어에서 (악기, 마음, 생각을) 움직이다, (박자를 맞추듯이) 두드리다, 그리고 노래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신성한 주제에 관한 것이거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거룩한 노래나 찬송으로 정의됩니다. 그 단어의 뜻에 관한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 주변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다루는 방식으로 서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노래는 반주를 위해 악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주에는 박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을 선율로 채울 것입니다. 이 음악은 거룩한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더 간단하게 정의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 또는

시입니다. 시(psalm)가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떤 주제도 다룰 수 있는 반면에 (나는 동산으로 간다네, 멸망하는 자를 구하세, 밤이 오니 일하세 등) 찬송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뛰어나신 주님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hymn)은 분명히 신자의 하나님과 명백히 관련이 되어야 하나 반면 솔직하게 표현된 한 편의 시(psalm)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면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 감정, 시련, 죽음 등이 시의 주제는 되어도 찬송의 주제는 될 수 없습니다.

노래는 목소리를 사용해서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부르는 모든 것으로 정의 됩니다. 본문에 있는 영적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위에서 살펴봤던 고린도전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절들을 주목해야 하고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부를 때 신약의 틀 안에서 다양한 범위의 주제를 선택하도록 허락하신 커다란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의 의미로부터 그것을 알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12은 그 분의 아들 안에서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영광스러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고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도록 복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구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야고보서 5:13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노래하는 것은 마음의 행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

지어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노래할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어떤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릴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날은 정말 놀라운 날이 될 겁니다.

“(계5:9-10)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계15: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여기서 황금 도시에서 경배자들이 가장 높으신 분을 찬미하면서 옛 노래도 부르고 최신 노래도 부릅니다

이것이 음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신약에 기록하신 전부입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은 곤란해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지? 거기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닌가? 제임스 형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확실해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연주와 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믿는 자들을 불쾌하게 할 만한 것들을 없애려고 우리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거나 그 위에 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 성경이 명확히 하는 곳에서는 우리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명확히 선언해야 합니다. 성경이 응용의 다양성을 허락하신 곳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음악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

이제 저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여기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음악의 다양한 형태와 관련한 질문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시작 전에 미리 공정한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의견이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확신하는 개인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진리의 적이라고 간주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당신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당신의 이웃들을 불쾌하게 만들게 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당신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특정 형식의 음악은 세상적이다.

증명할 수 없는 대담한 명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고전음악은 세상적이다. 그것은 사탄의 음악이다. 작곡가들의 긴 머리를 보십시오. 그들의 주름 장식이 많은 셔츠와 무릎까지 꼭 조인 반바지를 보십시오. 정신 나간 집단들 아닙니까?”라고 저는 크게 소리칠 수 있을 겁니다. 컨트리, 락, 헤비메탈, 또는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음악이라고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관계했던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15-16로 가 보겠습니다. (요일 2:15-16)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은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문장 속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용어를 살펴보고 성경이 그 용어를 정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직한 연구가 없이는 당신은 이 두 구절이 해 아래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근대 문명을 거부하는 아미쉬 파는 이 구절을 자동차와 전화기를 거부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몇몇 오순절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들어 올린 머리 이외에는 모두 거부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이 구절들은 신발의 굽, 헤어스프레이, 면이 아닌 나일론(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붉은 색 승용차와 트럭들이 모두 세상에서 왔다고 해서 이들을 최악에 속한다고 간주하는 데 사용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을 검색해 봤어도 본문에서 찾을 수 없으면서도 이 구절이 당신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는 데 위대한 구절이라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정말 많은 것들에 이 구절이 적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음악의 형태를 규정하는 데 사용하기 전에 이 주장의 논리를 먼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당신이 전자 기타와 드럼을 사용하는 합창은 좋아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보고 비틀즈를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은 소리 지릅니다. “저런 음악은

세상에 속한 음악이야! 저런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럴 듯합니다. 이런 당신의 견해에 많은 아멘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이 찬양 예배를 마칠 때까지 내 의견은 미뤄둬야 할 것 같습니다. 멋지게 차려 입은 젊은 여인이 피아노 반주에 노래를 하면서 무대에 오릅니다. 내가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나는 어느 자선모금 클럽에서 아주 똑같은 것을 보았다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한 소녀가 같은 음악을 하는 것을 본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훌륭한 교회에서 그런 세속적인 음악이 연주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불쾌해야 할까요?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를 연주합니다. 정말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반기독교 공영방송에서 같은 음악이 연주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유엔이 동물보호 활동을 추진하면서 똑같은 종류의 음악을 사용하던 때를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목사가 그런 세속적인 것을 찬양하는 것에 불신감을 느껴야 할까요?

다음에 한 남성이 나와서 아카펠라 형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마침내 음악을 즐기려고 할 때 술 취한 뱃사람이 클럽에 서서 무반주로 진지하게 노래 부르는 것을 본 것이 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이 교회 목사가 한 기독교 단체를 비판하는 설교를 한 것이 떠오릅니다. 그들도 무반주 찬양을 합니다. 제가 절망에 빠져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에는 모든 형태의 음악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할까요?

여러분 중 몇몇 분은 제가 조롱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목격하는 바는 당신의 견해가 논리적으로 부족하거나 성경 본문에 충분한 근거가 부족할 때 당신의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성경 구절들을 위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나에게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잘 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연주를 할 때는 축복이 됩니다. 같은 음악이 여자들이 속옷을 보이면서 자신의 치마를 들어 올리며 춤을 추는 곳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나에겐 훌륭한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피아노를 잘 연주하고 음악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레이 찰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고 감미로운 노래를 잘 부르는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존 파혜와 댄 포글 버그도 같은 일을 합니다.

이런 연관성 때문에 생기는 죄책감은 이 연관성이 정확하다고 할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로큰롤은 세상에서 연주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음악이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랩, 힙합, 로큰롤, 컨트리, 소울, 블루스, 재즈, 테크노 락, 디스코 그리고 스윙 등의 음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15-16를 잘못 적용하는 것보다 이런 음악을 제외시켜야 하는 더 나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베이스 기타

이 교회 저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면 가끔 훌륭한 모임에서 설교를 하곤 하는데 그 곳에서는 음악 예배에 베이스 기타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나는 베이스 기타를 사용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는 교회에도 가게 됩니다. 어느 교회가 옳을까요?

만약 내가 베이스 악기를 내 사무실 구석 벽에 세워 놓았다면 이 악기는 음표 하나도 연주할 수 없을 것이고 1000년 동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연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전자 베이스 악기를 같은 벽면에 기대어 놓았다면 이 악기는 아주 조용히 먼지를 쌓아가면서 어떤 살아있는 혼의 도덕성에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색소폰, 오르간, 트럼본, 하모니카와 바이올린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기타는 무생물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것들을 ‘남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전7:31)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역에 우리는 온갖 죄를 찢뜨리는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테이프 녹음기, 컴퓨터 그리고 많은 전달 매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과 혼의 가르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이것들은 더욱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선하거나 악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스 기타의 이면에 있는 생각은 노래의 베이스 부분을 강조할 때

줄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피아노 속을 들여다보면 그곳에 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건반을 쳐서 울리는 줄들이 있는 피아노에 앉아 연주자의 왼쪽 손이 노래의 저음 부분을 연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베이스 기타 사용을 비난하면서 당신의 피아노 연주자가 왼손으로 베이스 음표를 연주하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면 당신은 정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어떤 이는 줄 달린 타악기를 튕기는 것과 건반을 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 분에게 둘 다 튕기면서 연주를 하는데 하프는 되고 베이스 기타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는 내가 문제를 흐리려고 한다고 화를 내며 비난했습니다.

색소폰이 순수한 마음으로 연주 된다면 이 악기와 연주자의 사랑은 주님께로 전달됩니다. 중요한 것은 연주자의 마음이지 악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악기가 언급된 것은 창세기 4:21에서 유발이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언급된 곳입니다. 이 구절은 올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건전한 교리를 따르는 미국의 앞선 성경 교사들 중 한 명이 오르간은 아담의 타락한 후손이 개발했고 욕이 사악한 사람의 후손이 오르간 음악을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악기는 마귀의 악기라고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한 구절입니다. 그의 학생들은 그의 학교를 떠나 그의 의견을 전파합니다.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믿게 된다

는 겁니다. 당신은 그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증할 수 없는데도 당신의 어머니, 학교, 목사 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에게 가르친 것이라고 해서 그 의견을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분은 아닙니까?

사실 1 : 유발은 또한 하프를 발명했는데, 이 하프를 다윗이 사용했던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 모든 악기는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3: 사악한 사람의 후손도 무반주 찬양을 듣습니다. 사실 4: 오르간을 나쁘게 언급하는 구절은 홍수 이전의 사람이 오르간을 사용했고 그래서 멸망했다고 말하는 욥기 21:7-17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르간을 당연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결혼했습니다.

오르간이 악마라는 개념 때문에 나와 맞았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수십 년간 당김음이 많은 노래를 오르간으로 반주를 했던 복음전도자 레스터 롤로프의 사역에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있어 왔던 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알파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영웅들에게는 예외를 둡니다. 롤로프 형제는 위대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전원을 넣는 순간 사탄이 들어간다.

토머스 에디슨 시대 이후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전기는 수만 가지 방법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게 합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설교자들이 전자 악기를 반대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전기선에 불결한 영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집에서도 나와야 할 겁니다.

“전자악기는 마귀에 속한다”라는 말을 어떤 지적인 사람이 하면 의미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 조상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니다. 사도들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니다. 시대를 거쳐 위대한 사역자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막 아멘이라고 외치려는 순간 목사는 방문객들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건물 안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조상들과 위에 언급했던 귀족층 사람들 어느 누구도 실내 화장실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종교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피아노는 거장에게만 허용되고 옥외 화장실은 모두에게 허용되어야 하겠지요 나는 바울이 그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아이를 멋지고 올바르게 길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독실한 사람이 순종하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사용해서 훌륭히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연습된 화음

으로 당당한 실력으로 노래를 합니다. 이들의 두 번째 노래가 시작 되려는 순간 전자 기타에서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 조절 장치가 있는 교회 뒤쪽에 앉아 있던 그의 아내는 아이들의 마이크에서 목소리가 잘 나오도록 음향장치를 만지면서 머리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여 전기가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좋은 소리를 그들은 만들어 냅니다.

내 머리 속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설마 누군가가 장난하는 건 아니겠지?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에 웃고 있는 것이 나뻐 없는 건가?

이런 것을 모르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전기로 연주하는 음악이 최악 된 것이라고 믿는다면 가능한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설교를 할 때도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음향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기가 없이는 녹음도 할 수 없고 재생할 수도 없는 CD를 저에게 팔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온4:4)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저작권법을 어기고 훔치는 일

가수들 및 녹음 작업을 하는 음악가에 관한 주제 때문에 제가 교회의 몇몇 형제 자매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야깃거리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일상적이라서 사람들 대부분이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도둑질과 관련된 일이고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저작권법을 어기는 것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20:15)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구절은 한 번만 들으면 기억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엡4:28-29)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워 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뜻이 분명합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모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녹음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어기지 않고 노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도 현대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현대 복음성가는 죄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 곡을 만든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당연히 지불해야 할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보통 카세트와 CD에 그것들을 녹음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라고 변명을 합니다. 만약 음주, 음행 또는 야한 옷차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자신들이 노래를 테이프에 녹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모두 도둑이 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창작 작업을 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보상을 함으로써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둘째, 만약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하더라도 잘못된 관행은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만약 당신이 그들이 연주하고 부르는 그런 형태의 음악을 비난한다면, 그들의 노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음악 악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총괄적인 저작권을 교회(노래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에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즉 찬송가 400장을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매년 비용을 지불하고 100장 이상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계약은 노래를 녹음하거나 노래를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비용을 지불했어도 당신 교회 찬양단이 다시 판매를 위해 교회 CD에 노래를 복사한다면 당신은 모든 CD 복사본마다 저작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이런 법들을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법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음악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음악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법은 창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우므로 내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밥 스미스에게 음악적 능력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노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래를 연주하기 위해서 6명의 음악가들을 고용했고 3명의 음향 장비 기술자를 녹음과 프로듀싱을 위해 고용했습니다. 흥분시키는 음악을 비난하는 어떤 여성 그리스도인이 그 노래(그 여인이 교회 자매들에게 자신은 듣지 않는다고 말했던)를 라디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전자 기타와 드럼이 자신의 원칙과 교회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그 노래를 연습하고, 음반에 그 노래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음반을 팔고 다닙니다. 그녀는 그 노래를 좋아했고, 그 노래를 원했지만 밥 스미스가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를 가져간다는 것과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 존슨은 하나님으로부터 건축 기술 분야에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건설업자를 찾아서 계약을 합니다. 사치스러운 건물을 비난하는 어떤 그리스도인 여자가 어느 날 그 건물을 보고 맘에 들어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경과 잔디밭이 자신의 원칙과 교회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집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 집으로 이사를 해서 나무들과 동상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그녀는 거기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고, 그녀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녀는 밥 스미스의 노래를 사용했던 것처럼 빌 존슨의 집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걸까요?

이것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선한 간증을 잃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벧전2:13)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분명히 당신은 스윙 비트의 4중창 노래를 듣는 사람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나쁜 삶은 나쁜 음악과 같다

특정 음악 형태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중 몇몇 사람들의 끔찍한 삶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그러한 삶이 그런 음악 자체가 마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구 상에 죄가 없이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연주자들의 삶에 관한 죄를 근거로 음악의 한 형태나 분류를 제외시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논쟁입니다.

에미 그랜트 챗프맨 질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묘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불륜, 이혼 그리고 재혼 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샌디 패티 할버슨이 가수

돈 페슬리스와 함께 벌인 4년간의 최악의 축제는 마침내 그녀의 결혼 생활에 파경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유부남과 두 차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가수들과 범했던 최악이 계속되면서 문제는 심각해져 가고 미국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끔찍한 상태가 드러납니다. 이들에 앞서 돈 프랜시스코와 마이클 스미스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 행사로 진행되는 노래 공연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음반을 파는 일도 잘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나서는 음반의 판매가 저조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자 경영주인 제제벨과 사기꾼인 드미윗이 연예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독교 방송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음행이 드러난 일 때문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멍청한 시청자들은 연예인들이 다른 남편이나 부인과 함께 새로 찾은 행복으로 사랑해야 하고 기뻐해야 한다는(다시 말하면 부정을 저지르라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 앨범을 다시 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행복해합니다.

마이클 잉글리시는 1994년에 엄청 큰 여섯 개의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그는 크리스천 그룹 가수인 마라베쓰 조단과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조단은 잉글리시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던 빌 게이더는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잉글리시가 매춘업소에 자주 들렀다고 인정했을 때 게이더는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크리스천 단체가 이 문제에 반응을 하고 있나요? 바로 다음해에 그들은 잉글리시와 빌 게이더 그룹에 평화상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 중에 몇 명은 자신의 교회에 내야 할 돈을 게이더에게 주었습

니다.

남부 복음찬양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런 장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기사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인기 있는 악단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음행, 사생아 그리고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선교가 아니라고 생각됨)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확인해 줄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남부 복음 청중들이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산업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행과 음란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임신한 미혼 여성 가수는 다음 음반 제작 과정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앨범은 사진이 아니라 삽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 년 후에 언론 홍보 기구는 멋진 고음을 내는 그 알토 가수가 결혼 후 휴식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 부도덕성이 나타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음반 회사는 왜 이런 사실을 숨기는 걸까요? 만약 이런 사실이 언론에 나가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거의 슬퍼하는 기색 없이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악함에 반론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콘서트에 계속 데려가고 음반을 삽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음악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 도티, 벅 그리고 레바 랍보가 그 업계에서 가장 유명해져 있을 때 레바가 랜디 가드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에 도니 맥구일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랜디와 이혼을 했고 도니는 그의 아내 조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비는 도니와 결혼을 했고 랜디는 조이와 결혼을 했습니다. 도니의 형제인 래비가 “당신은 우리가 파멸의 이브의 손안에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나에게 말했죠.”라고 노래했습니다. 레비는 한 번의 앨범과 콘서트 투어에 불참을 했고 그리고 그 그룹은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CCM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거룩한 설교자의 아들인 조엘 햄필은 기독교 음악 사업을 하면서 생긴 부패한 삶 때문에 곤경에 처하면서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그가 병에서 회복된 후 그 산업에서 크고 작은 모임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을 가지며 그들에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 후에 이 위대한 작곡가 겸 가수의 경력은 끝장났으며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2005년까지 남부 침례교 설교자가 그 사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에게 자신의 동성애 욕망이나 행동(당신이 어느 편에 더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의 문제를 말하도록 끝까지 압박하여 그 업계에서 수십 년간 알려져 왔던 것이 결국 대중매체로 흘러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그들의 구성원들 사이에 있었던 더러운 일을 덮으려고 했던 남부 복음사가 거물들은 가수들이 성 정체성에 대한 강력한 투쟁에 동정심을 갖지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오프라나 제리 스프링거가 영화 산업에 있는 성도착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동성애자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현대의 음악 업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은 사람과 돈의 문제이며 음표나 음의 진행이나 리듬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 영역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일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이 음악이 마귀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말인가요? 당신은 정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가요?

만약 이런 형식의 이유가 진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과 복음 전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나요? 나는 그들의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결혼까지(내가 아는 것이 여섯 번이지만 매우 보수적인 형태의 아름다운 찬양을 부릅니다.) 한 믿음의 전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KJV로 설교를 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여인과 마을을 떠나고 믿음의 근본을 부정하지도 아니하면서 유부녀와 다른 마을에서 생활을 꾸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한 일에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개인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과 유명한 목사들이 도덕적으로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까지 외면해야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설교자들이 불명예스럽다고 해서 그들의 주인이 그들이 설교하는 내용과 방법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많고 많은 노래들 중 성경에는 160개가 채 안 되는 수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들 중 백미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으며 음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살인에 가담했고 이를 덮으려 했던 한 남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작곡자가 사악하니까 그가 만든 음악도 마귀의 음악이라는 논점을 계속 사용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다윗의 시도 거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1000명의 여인과 관계를 했던 한 남자에 의해서 기록된 노래인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목사로 원합니까? 그가 별로 선하지 않다고 해서 성경에서 그의 노래를 제거해야 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제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는 죄, 불륜, 음행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재혼은 두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리스도의 간증을 크게 손상시키는 죄입니다. 여인이 밴드 멤버와 불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그 사람과 사생아를 낳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 둘이 바로 돈을 위해 노래하러 가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형편없는 기억 속의 간증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자가 뮤직비디오에서 거의 반쯤 벗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세속적인 경력을 추가할 수가 없게 되고 은퇴할 때가 되면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돌아오게 됩니다. 해즈 빈즈 동영상에 있는데 어떻게 아무나 게이터 홈커밍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긴 머리의 남자가 역겹지 않은지 이상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여인도 나에게는 수수께끼입니다. 사역자들이 잘못을 하거나 그보다 더 한 짓을 했지만 그들의

설교는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에 열거한 일들로 인한 특정 음악에 대한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보수적인 찬양을 사용합니다. 500곡이 넘는 노래들 중 우리가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믿었던 존 웨슬리
-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던 마틴 루터
- 낱짜 설정을 잘못해서 제칠일안식일 교회라는 이단교가 생길 빌미를 준 윌리엄 밀러
- 괴짜 기질에 세속적이고 무가치한 글을 많이 썼던 윌리엄 쿠퍼
- 회중파교회, 영국 성공회 교도, 메노파 교도, 그리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단체들
- 자신의 교리적 견해와 맞지 않으면 성경을 번개하는 것을 일삼던 윌리엄 켈리

그리고 당신이 당신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도 결코 초빙하지 않을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간단합니다. 단지 특정 음악 형태를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이 비도덕적이고 교리적으로 틀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음악을 일괄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

이제 음악을 생계로 삼는 전문가 집단을 벗어나서 우리 주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영지에서의 모임 시간입니다. 청중들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우정이 더 친밀해지고 악수와 포옹을 나누고 있습니다.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보통은 무기력하게 부르는 노래를 오늘은 열정과 열의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은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육신의 자극에서 오는 세속적 흥분을 주님의 권능으로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두 손을 위로 들고 가슴 뜨겁게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진흙탕으로부터 나를 끌어내 주셨네. 그분께서는 하늘 길로 나를 옮기셨네.” 음악인들은 전심을 다해 연주합니다. 회중은 흥분을 합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 말하리라! 온 세상이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순간의 흥분으로 생긴 감정에 의한 외침은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확신으로 여기고 찬양을 몇 번씩 반복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제임스 형제가 왼쪽 뒤 중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냉소적인 성격이라 이들의 대부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그들이 중대한 죄와 범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살고 있고 그들의 대부분이 주님을 높이거나 그분의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여있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행복해 합니다. 그는 진흙탕 속에서 비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것을 말하리라!” 정말일까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들은 식당, 백화점, 대형 쇼핑상가, 상점 그리고 모텔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복음 전도에 할애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몇 년간 한 곳에 전도지를 꽂아두는 전도지 꽂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웃들은 한 번도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사역보다는 강아지 간식에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사역 지역에 가는 것에 관해서 기도하는 데는 단 5분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외국 땅에서 벌어지는 죽음과 질병을 그저 신문 기사로만 보고 있습니다.

웅장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성이 가득 찬 마음으로,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소리치며, 기도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교회 건물 안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복도를 오르내리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당신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은 오히려 매우 긴장하고 부끄러워하며 당황할 것입니다.

다음 주 나는 모임에 관한 연재 설교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찬양단을 태운 버스가 막 도착한 뒤에 내가 도착합니다. 그 그룹은 마치 우리 중 아무도 그 버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지할 만한 후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근처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그 단체의 여자들은 그들이 오면서 입었던 반바지를 벗어 버

리고 의무적으로 복음성가를 위한 단체 치마를 입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비를 설치하고, 음향을 확인하고, 여러 번의 예행 연습을 하고, 그러고는 바로 뷔페식당으로 향합니다. 기도를 위해 5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를 차례가 옵니다. 세 번째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눈물 가득 찬 감정적인 간증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귀한 오래된 성경책과 혼의 승리에 관하여 말합니다(또는 영적으로 충만하여 또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 어떤 교단에서 노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 그러다가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영망으로 만들고 하늘에 있는 엄마는 보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 형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일어섰는데 그들 중 아무도 성경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버스에는 전도지도 없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지 연습하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예배 후에 그들은 마치 그들이 설교에서 막 은혜를 받은 것처럼 웃으면서 테이블 주위에 서서 그들 자신을 젊은 기독교 영웅으로 소개하면서 포스터와 티셔츠들을 팔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남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기도하고, 혼을 구하기 위해서 세계를 여행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노래하면서 정작 당신 자신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냥 거짓말 잘하는 연예인일 뿐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거짓 증인이 되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대가

를 지불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제임스 형제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바꿔서 당신이 다른 회중들과 옛날 찬송가를 부를 때 당신이 주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주의 깊게 생각하나요? “나는 절망적이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세상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어디든 가겠습니다.” “금과 은보다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정말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찬양을 하면서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네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네 말 수를 적게 할지니라. (전5:1-2)

위선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수적인 음악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단위로 또는 순수한 멜로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많은 크리스천 그룹의 음악을 듣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박자를 강조하기보다는 아름다운 화음의 어우러짐을 강조합니다. 그런 형태의 음악을 좋아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기꺼이 그들의 음반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지금 제임스 형제는 시편 중에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노래하는 소녀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년들이 주님께서 오심에 대하여 차분하고 빠른 노래의 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의 아버지가 마이크로 나와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자랑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남부 복음성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는 현대 음악을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음악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당신은 그의 가족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회중들이 아멘을 외치는 동안에 나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게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시편을 인용해 불렀던 그 노래가 이 가족들이 추구하지 않으려 한다는 현대음악을 왕성하게 했던 초기 활동가 안네 헤링에 의해 만들어진 곡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소년이 불렀던 곡은 로니 힌슨이 만든 곡이고 힌슨이 그 곡을 녹음했을 때는 남부 복음성가의 리듬은 아미쉬 장로가 발 장단을 맞추게 할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곡은 예비(도니 워윅이 로큰롤로 연주 했던 CCM과 같은 연주를 했던 사람)와 그녀의 이혼한 딸 레바와 멋지게 그 노래를 불렀고 지금은 이혼한 도티에 의해 대중화시킨 존슨의 시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멋 부리려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악에 우리 자신의 취향을 섞어서 부르며 그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작곡가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방법은 없지만 저는 품위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중에 몇 분은 화가 나서 술집 주인이나 포르노 판매원에게도 결코 보내지 않을 법한 고약한 편지를 나에게 보낼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신 거죠? 그 이유는 당신은 사람들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은 성경대로 믿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당신의 근본주의 신앙의 적들을 물리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준비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특정 형태의 음악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은 그런 음악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이야기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특정 음악을 비난하면서 실제로는 그 음악을 사용하고 있고, 그 작곡가의 곡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나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워렌 웨이스비의 책에서 인용한 설교를 하면서 그를 비난하는 지역을 오고간다면 어떨까요? 그의 책을 읽은 누군가가 내 마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더 크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음악을 대하는 문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노래방기계

놀라운 기술 발전에 덕에 남자와 여자(대부분은 여자)는 이제 웨이크로스에서 밤새도록 노래하며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한 환상을 자신들의 자동차 개인 공간에서부터 자신들의 지역 교회 강단까지 다양한 곳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대 뒤에서 상상 속의 박수를 그리며 큰 소리로 노래하는 대신에 성도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노래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운드 트랙이 유행하기 전에는 결코 해 볼 수 없던 일

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서 노래하거나 사운드 트랙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죄가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 동안 편리했던 테이프들을 사용하면 서 고상한 음악과 고상한 노래를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의 모든 경우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미국의 많은 곳을 다니며 목격했던 장면을 설명하겠습니다.

릴리링스 자매는 지난번 골든 가스펠 음반에서 그녀가 정말로 좋아했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종교 서점으로 달려가서 공연 음반을 샀습니다. 그녀는 일 주일 내내 연습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수요일 저녁에 그 노래를 불러 볼 수 있었지만 그녀는 좀 더 많은 청중이 있는 부흥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예배 전에 도착해서 카세트를 음향실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뒷면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습니다.

몇 분 후에 그녀가 소개됩니다. 마치 골든 가스펠 리드 가수가 했던 것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고 그녀는 노래 전에 짧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본에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머리를 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럼소리가 들리길 기다리고 밴드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큰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더욱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녀는 잠시 뒤쪽을 봅니다. A) 테이프 뒷면을 넣은 음향실 사람은 B) 연주 버튼을 누르지 않고 되감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C) 그녀는 지난번 오후 리허설 뒤에 초기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을 알아 차렸는데, D) 음향실 사람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밴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릴리링스 자매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리를 떠나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몽이 되어 버릴 겁니다.

그때 갑자기 짜잔 하고 음악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볼륨을 확인할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노래방 기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교회에 한 시간 전에 도착해서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둘째로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급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나뭇잎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통 또는 그 이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반주 없이 또는 간단한 피아노, 오르간 또는 현악기 반주만으로 노래를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당신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부른다면 나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보통 또는 그 이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앞에서 또는 내쉬빌 전문 밴드와 완벽

한 음정을 내는 백업 싱어들 앞에서 그 목소리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주 형편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녹음된 반주로 노래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기에 모든 문제점, 모든 놓친 음표, 모든 음정의 이탈, 조금씩의 모든 박자 놓침이 확대되어 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멋진 밴드와 세 명의 보조 가수들이 그들 뒤에서 받쳐 주면 자신들의 약한 목소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또는 그렇게 목소리를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나를 믿어보세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그녀가 당신에게 말해 주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녹음된 밴드 음악 반주를 사용할 때는 멋있게 노래하는 목소리 이외에 어떤 다른 것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셋째, 대부분의 테이프에서 연주되고 있는 음악의 형태는 그들이 연주하려는 교회들의 음악적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긴장하고 불편해합니다. 쿵쾅거리는 드럼, 들려오는 베이스, 그리고 트리오 코러스의 목소리들은 한계를 벗어난 것처럼 그들을 거슬리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더 이상 이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래쪽으로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음악은 녹음된 음악의 영향을 받습니다. 회중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특별한 음악은 목사와 교회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형태로 수년 안에 변해 갈 것입니다. 그들은 사운드 트랙의 영향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주제를 마치기 전에 나는 조그만 논점을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몇 가지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무대에서 가수들이 보여준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에서 지워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십시오. 진부한 자세는 버리십시오. 그냥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가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다리를 구르고, 엉덩이를 흔들고, 손수건을 돌리면서, 밴드 음악으로 흥겹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둘째, 만약에 4년간 대학에 와서 4만불을 쓰면서 부모의 지도 아래 자신들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대학에 오고 싶어하는 꽃미남 꽃미녀 청소년들을 교회에 단체로 보내서 노래를 부르게 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저 몇 가지만 부탁 드립니다. 여자아이들에게 남자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애타게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남자 아이들에게는 여자아이들이 노래할 때 진부한 웃음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역겹습니다. 이런 모습도 각양 각색입니다. 이걸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좋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큰 박수를 보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기

사랑하는 형제들 중 몇 분은 논리적으로 보이고 최소한 좋은 설교거리일 수 있는 음악 역사의 견해들을 검토해 보았을 겁니다. 아직 이런 논리는 그들 자신의 의견에 충분한 근거가 못됩니다.

이것들 중에 루시퍼 이론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A. 루시퍼는 신체의 일부가 악기로 변한 음악의 천재로 지음 받았다.

B. 그는 타락해 떨어졌다. C.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한 이후 음악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무시한다면 매우 타당하게 들립니다. A. 모든 사람은 루시퍼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B. 어떤 사람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을 뿐 사탄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C.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빛(요1), 믿음(롬12:3),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롬1)을 갖고 있습니다.

D. 사람이 죄를 짓기 위해서는 사탄이 그를 유혹해야 합니다.

루시퍼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음악이 마귀라고 말하는 것은 농사짓는 일과 건물과 수학과 예술 등이 마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은 항상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람들은 심고 결혼하고 집 짓고 여행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앞에서 생각해봤던 음악에 대한 언급을 보면 그들 모두는 긍정적입니다. 성경은 루시퍼의 타락으로 음악이 나빠졌다는 이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람을 우월하게 하고 검은 피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사실로 믿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 약간 비주류의 근본주의 단체가 있습니다. (라틴이나 필리핀 여자가 미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즐길 만한 감양이 없어서 자신들의 피부 색에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은 이러한 확실하지 않은 작은 편견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흑인 때문이라고 불평하는 고귀한 방법들을 찾습니다.

음악의 역사에서 그들이 취한 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루시퍼가 음악을 마귀의 도구로 만들었고 함 족속과 그의 리듬감의 재능을 다른 인종을 부패시키기는 데 사용했다.” 이것은 “그들이 흑인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기 전에는 백인과 황인족이 훌륭한 민족이었다.” 는 학설 아닌 학설입니다. 이러한 가여운 혼들은 아프리카 음악의 한 종류를 마귀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경향은 모든 연령에 거쳐 일관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IQ가 75만 된다면 누구라도 중국 또는 러시아 또는 스칸디나비아에는 탭 댄스를 추고 또는 우울한 음악을 연주해서 그들을 부패시키는 흑인들이 없는데도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다른 생각은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늙아지고 날이 갈수록 인류의 죄가 점점 더 깊어가면서 음악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는 음악이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선했지만 나중에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생각입니다.

사실 음악은 아프리카만 제외하면 엘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두 선한 편에 속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지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설은 또한 몇 가지 명백한 사실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모든 죄가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점점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오류 중에 성경이 다루어 놓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그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신약성경은

이미 그러한 문제들이 사도 시대에도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들과 바람둥이들이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문맹이 아닙니다. 참조 구절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한 개인이 타락하는 것이지 온 인류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처럼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들은 홍수 이전과 이후 모두 악했습니다.

둘째, 이 이론은 어느 누구도 40년 전까지는 현대 음악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이 이론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모든 시대가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 논쟁의 끝으로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1960년대까지는 마귀가 음악에 결코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귀는 로큰롤을 만들어서 사회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전자 기타들이 라디오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원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뉴스를 계속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책을 들먹일 필요 없이 당신의 여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열광했던 20세기로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그리고 간략하게 봅시다. 밴드가 강렬한 박자음으로 신나는 음악을 연주 하는 동안, 미니스커트, 단발머리, 찰스톤의 격렬한 댄스, 그리고 다른 열정적인 스텝들과 같은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이런 이미지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댄스클럽에서 당신이 우울해지기 전에

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밴드음악이 크게 유행했던 시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만약 비틀즈와 롤링스톤이 음악을 부패시켰다고 생각한다면 베니 굿맨의 “In the Mood”는 어떤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골프게임 또는 기도 모임은요? 뮤지컬 오클라오마에서부터 “Doin’ What Comes Naturally”까지 완성된 시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래퍼들은 더 비도덕적이지만 에텔이 불렀을 때 당신은 그 선정적인 말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초기 중세 음악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오래 전에 스테판 콜린 포스터는 예술가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음악을 큰 도시의 백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음악 작곡가로 유명했던 사람은 제프 차우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세상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반항, 음란, 외설적 행동, 관능적 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춤과 같은 것은 척 베리와 함께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담 이후 우리 주변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모든 음악이 만들어지거나 연주될 때는 현대적입니다. 그 말은 동시대에 존재하고 함께 살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고전 음악이, 다른 방송에서 컨트리 음악이, 또 세 번째 방송에서는 헤비메탈이, 그리고 네 번째 방송에서는 복음 성가가 연주될 때 그들은 모두 동시대의 것입니다. 단지 노래가 새롭다고 해서 그 음악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련된 음악의 역사를 통해 빠른 속도로 짧은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집트 사람, 히브리사람,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또는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 사용된 음악의 형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 찬양 그리고 영적인 노래들이 초기 교회에서 어떻게 불렸는지와 같은 내용을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지식이 영적인 건강과 교리적 바로잡음을 위해서 필요했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을 겁니다. 일하는 한 주의 길이를 정의하고, 목사들의 옷차림의 자세한 부분을 간단히 묘사하고, 족보와 경계 설정을 위해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지만 음악의 빠르기나, 화성학의 정의, 당김음, 또는 멜로디의 요건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기록도 없는 책을 음악에 대한 어느 개인의 의견을 지지하기 위해 억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이 교회 역사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음악에 관해서 많은 출판물을 읽어 봤습니다. 나는 내 서재에서 300명 이상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서전들도 대부분 읽어 보았습니다. 나는 초기 교회에서 음악에 관해서 이슈가 된 것을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AD 1세기 후반과 2세기에 그노시스 주의자와 아리우스파로 알려진 이교도 집단들은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래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래들은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민스트럴즈들에 의해서 여러 곳으로 옮겨지며 이들 노래들은 수백 년 동안 대중 민속 노래들로 남겨졌습니다.

400년대 어느 날 시리아(안디옥, 이방인 교회의 본부, 사역의 허브, 우리가 갖고 있는 KJV인 순수 본문의 자료가 있는 곳)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성경적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만든 노래를 이교도들이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작곡가의 이름은 에브라렘 사이러스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작사가였지만 음악적 재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멜로디나 새로운 음악적 스타일을 창작하는 대신 그노시스(영지주의자)주의자들이 만든 박자와 곡조를 가져다가 성경 말씀을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나는 오늘날에도 유사한 관행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쓴 여섯 권의 책을 갖고 있습니다. 에브라렘 사이러스의 노래에 관한 작업은 잘 되지 못했습니다. 이 노래들은 여러 번 반복되는 몇 줄의 성경구절이 있고 화음 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음악적 표현의 기본 형태가 그 후 200년 동안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사용된 음악의 역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회 역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놀라게 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아주 느슨하게 사용합니다) 6세기의 마지막 10년간 나타났습니다. 예명이 위대한 그레고리인 그레고리는 오늘날 그레고리안 성가의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음계를 수정해서 거룩한 성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뭔가 단조로운 형태로 가사를 부르는 그의 스타일은 성스럽고, 그 이전의 다른 형태의 음악은 세속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주장을 하는 제 친구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로마의 교회에서는 이런 단조로운 형태의 음악이 40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음악적 표현은 반대되었습니다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2,800 곡 이상의 그레고리안 성가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들이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를 부른 아이작 와트가 만든 시를 사용한 성가들 중에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자군 시대에는 화음이 없이 멜로디만 사용하는 음악과 많은 화성을 사용하는 음악 사이에 커다란 논란이 있었습니다. 후자는 거칠고 세상적이고 도덕성 타락의 증거로 생각되었습니다. 새로운 음악은 죄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오늘날 근대 음악의 근본은 1300년대 후반과 1400년대 초기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작곡가들은 부조화로 여겨던 세 박자와 여섯 박자로 리듬을 쪼개는 방법이 소개됨으로 해서 리듬과 화성의 사용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음악은 과장 없이 말해서 매우 건조했고, 주로 수학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음악을 뭔가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이런 변화가 중세시대의 끝을 보여주고 있고 르네상스를 향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음악은 좋게 보아도 세상적이고 최악으로 보면 악마적이라 여겨졌고 교회로부터 금지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시대에서 전해 온 우리들의 보수적인 찬송의 대부분은 이러한 경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일관된 화제가 있습니다. 음악에는 용인된 규범이 있습니다. 음악적 발전은 세상적이라고 해서 거부되지만, 결국은 그러한 발전은 수용되었고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계속 반복됩니다.

개혁이 시작될 즈음에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폴라망어 작곡가들은 음악의 형태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 다음의 멜로디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능력,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주는 방법은 영적인 노래가 점점 대중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교황 칙령이 현대 음악을 정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이 말을 지배하는지 말이 음악을 지배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나친 음악이 감정을 움직인다고 느꼈습니다. 극 보수주의자들은 노래의 유일한 목적은 경배를 가르치거나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서 사실상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고 죄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개혁자들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모두가 거듭났거나 오늘날의 성도들만큼 성경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교회의 노예로 지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과 처지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지적 능력이 대단히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개혁자인 올리치 쾰빙글리는 그들 가운데(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사적으로 동료가 없었던 에라스무스, 2위와는 차이가 컸던 위대한 알프레드는 배제하고) 가장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가였지만 음악은 기독교 예배에서 감각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교회에서 사용되는 오르간들을 없애려고 투쟁했습니다.

그 이후 살인자 존 칼빈의 시대가 왔고 다성음악은 세상적이고 오직 단 선의 멜로디만이 거룩하다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머리 위로 보여지지 않는 한) 그는 계속 교회에서 악기를 없애는 쾰빙글리의 일을 계

속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인용구가 아닌 어떤 가사도 노래로 불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칼빈의 삶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가 괴물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독재적인 권력과 결합된 그의 거대한 자부심과 험악한 언어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차마 불리기 힘든 끔찍한 창조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어떤 시편에 어떤 선율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적합한지를 정해 주고, 이 곡들만을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칼빈과 함께 일했고 후그에노트 교회에서 음악 책임자였던 루이즈 보르게오이스는 칼빈을 위해 작곡을 하면서 감히 다른 멜로디를 사용하는 바람에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칼빈주의자라면 그리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이 기간에 프란시스 1세 왕의 궁정 시인이었던 마루은 성경 구절을 특정 형태로 놓거나 운율의 형태로 놓기 시작했고 이 구절들을 프랑스 선율과 세속적인 민속노래들을 대중화 시키기 위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현악기들과 플루트 반주에 맞추어 불러졌습니다. 1500년대에 이러한 현상은 성경적 진리를 퍼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고 교황청에서는 그를 프랑스에서 추방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가톨릭 종교 밖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공식 선언했던 로마 교회에서 악명 높은 트렌트 공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불경스러운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서 결정된 엉터리 같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음악이 거룩한 음악이었고 어떤 음악이 세속적인지 명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레고리안 시대의 단순화된 성가들은 옳은 반면 세속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세속적인 것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모든 노래들은 죄악 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모든 음악을 금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교회들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중심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더해서 마틴 루터는 음악을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그는 보통의 표현들과 단순한 가사를 사용해서 노동자 계층의 언어로 찬양을 쓰길 원했습니다. 그는 그의 노래들을 오늘날 유행하는 서정적 음악에 기반을 두었고 독일의 민속 노래들에 깊게 토대를 두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마리아를 찬양하는 용도로 잘 알려진 찬송가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만들기 위해 단어들을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루터는 곡에 실어서 알리고자 하는 진리를 담을 수만 있다면 그 곡이 원래 어디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엄청난 재능을 지닌 패니 크로스비 여사를 수많은 찬송시를 남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녀는 노래나 찬송가를 만들지 않았 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시를 출판사에 팔곤 했는데, 그 출판사들 대부분은 성스러운 음악과 세상적인 음악 두 가지 모두를 취급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프로 음악가들의 일부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녀의 시를 음악에 사용하고 만들어진 곡을 교회들과 개인들과 찬송가 편집자들에게 팔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냥 미쳐갑니다.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이 높이는 성인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 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단지 크로스비 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아주 웅장한 찬양들 대부분은 세상에서 음악을 가져와서, 세상적인 가

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가사로 바뀌서 잘 변환시켜 놓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해봅시오.

“A Morning Song”은 위안을 주는 선율입니다. 가사는 1707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찬양과 영적인 노래”를 출판한 아이작 왓츠가 작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멜로디는 영국 민요인 “The Bellman’s Song”이었습니다.

“What Wondrous Love”라는 아름다운 노래는 16세기 아일랜드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적인 발라드 선율입니다.

“Come Ye Sinners Poor and Needy”로 알려진 “I Will Arise”는 13세기 스코트의 “Hynde Home”의 선율에서 온 곡조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Slane”으로 알려진 고대 아일랜드 사람들의 선율은 나중에 오늘날 찬양인 “Be Thou My Vision”에 말씀을 가사로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옛 켈트 족의 음악은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1780년 “Wayfaring Stranger”의 가사를 그 음악에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원시 감리교파 사람들은 큰 야외 모임을 개최했는데 이 모임을 통해 미국의 농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중적인 세상적 음악을 가져다가 성스러운 가사를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선율을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노래에서 따와서 현대 음악으로 교회에 가져온 고전 필라델피아 찬양의 목록을 생각해 봅시오.

미국이 대중적 선율에는 피로 가득찬 원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네.

우상의 나라인 인도 민속음악

내 믿음은 설 곳을 찾았네.

Landas 라는 제목의 노르웨이 민속 음악

오! 주께서 나를 찾아 오셨네!

윌리암 오르의 시를 마오리족 음악에 사용

어린 아이 같이

영국 “Greensleeves” 멜로디를 사용

굳건한 반석 “How Firm a Foundation”

미국 식민지 찬가

구원자이신 그분을 찬양하라!

플리머스 형제회의 윌리엄 켈리가 전통 독일 민요인

Acclaim to convey his wondrous poemf 를 사용했음

깨어라 내 혼아!

멜로디는 조수아 리벳이 개작한 포크송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음악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큰소리 치기 전에 당신이 부르는 보수적인 찬양이 원래 어떤 노래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약 1823년경에 설교자였던 로우랜드 힐은 좋은 노래를 다 마귀가 갖고 있냐며 억울해했습니다. 재즈, 래그타임, 스윙, 블루스, 밴드, 남부 복음성가 그리고 블루그라스등이 생기기 전인 이 당시에 그는 무슨 음악을 보고

그랬을까요?

{찬양에 사용된 멜로디의 근원에 관한 정보는 The Cyber Hymnal 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찾아 보면 됩니다.}

고전음악이 실제로 고전이 되기 전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전적이라 불리는 음악이 거룩하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만들어지고 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고전 음악이 그들이 경배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들이 흠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도 좋아하기 위해서 배우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전 음악도 새로운 음악이 기존의 형태를 깨고 나타날 때 거부되었던 것처럼, 이 음악이 새롭게 등장했을 때는 같은 강렬함으로 거절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음의 예들과 비평가들의 후기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읽으면서 그것들이 어떤 로큰롤 노래를 가리키는지 추측하면서 살펴보십시오.

“이 작곡가는 진정한 음악가라 할 수 없었고 그보다 더 최악일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곡을 만드는 사람의 성향의 변화가 생기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징조 중에서 카인의 징표 같은 이 징조는 기본적인 법칙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성법들은 이상한 화음들을 사용해서 귀에 이상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건디기 힘든 음표의 모임 그 자체입니다.”

“그는 항상 손톱 자루를 여기 저기 쏘아 놓고 망치질을 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러한 세 가지 언급들은 “The Lovin’ Spoonful guy”의 존 세바스찬이 아니라 1855년과 1881년 사이에 활동했던 존 세바스찬 바흐의 작품에

대해 쓰인 내용입니다.”

“이 작곡가는 귀청이 터질 듯한 요란한 소리, 불협화음, 일그러져버린 소리, 급격한 조옮김, 불쾌한 선율과 리듬의 뒤틀림을 포기할 줄 모르고 찾아서 사용합니다.”

“기이한 독창성, 이상한 조성, 부자연스러운 화음의 배열, 가장 말도 안 되는 운지의 조합으로 효과를 만드는 쪽으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기에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뼈뼉한 음악입니다. 그가 이 음악을 선생님께 제출했었다면 선생은 그 악보를 찢어서 그의 발 앞에 던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강렬한 록음악을 다룬 빌보드 매거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쇼팽에 관한 언급은 아닐 겁니다.”

“그는 자신의 셋째 발라드 작품번호 47을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이 작가의 거친 선율과 화성은 지나쳐 보입니다.”

“여기에 고통스러운 박자가 있습니다.”

“그는 미래 음악에 감염된 전염병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광견병에 걸린 것 같고, 경멸감이 묻어나고, 무기력하게 뒹굴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게 하면서 귀에 거슬려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 있는 기본적인 영감이 거의 없습니다.”

“광견병? 내 생각에 여러분도 그 앨범을 갖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비평가는 차이코프스키의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썼습니다.”

“백만 장 판매를 기록한 다른 필라델피아 예술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음악은 잼과 꿀을 바르고 너무 애절한 만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모든 음악에는 조금은 불필요한 것들로 쥐어 짠 슬픔이 흐릅니다.”

“이 예술가가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리듬, 멜로디, 조성입니다.”

“음악의 무정부주의자들 중 한 명”

“불쾌함에 있어서 중세 화가들의 기묘한 공상도 이 사람 작품의 소음만큼 불쾌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악기들은 하나같이 미쳐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음악이라면 이 음악은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역겹고 혐오스러운 왜곡”

“이 소리들은 나의 아버지가 말씀하곤 했던 것들과 같습니다. 이러한 선택된 표현들은 라흐마니노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베 마틴이 언급한 프랭크 허바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전 음악은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한 곡조로 만들어지는 음악이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음악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성경에서 사용된 모든 악기는 오늘날 그러한 활동에 사용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기를 금하거나 이것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연주되었는지에 관한 어떤 가르침도 금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노래 가사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가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음악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사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선만 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부 친구들의 바람과는 달리, 더 외곬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몇몇 작가들은 무언가 이런 선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 가사에는 뭔가 파괴적인 내용이 없이 그저 좋은 것들과 긍정적인 생각만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당신이 시편을 읽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성경의 노래책은 전쟁에 부치는 시, 전쟁에서 죽이는 기쁨, 배고픔, 굶주림의 고통,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적들과 죄들이 만연해 있을 때의 절망의 외침,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개인적 간증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주제를 선택하는 데 많은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이 주는 규칙과 허용 범위 안에서 그렇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프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네 어린것들

을 들어다가 돌에 메어치는 자가 행복하리로다.’라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셋째, 우리는 음악이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영화 제작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음악을 자신의 영화나 텔레비전 쇼에 삽입합니다. 관객을 긴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음역의 급격한 바이올린, 피콜로나 나쁜 사람이 점점 다가올 때 빼거덕거리는 무서운 소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부드럽게 퍼지는 선율, 전쟁 장면 뒤로 보이는 씩씩한 행진과 큰 나팔소리 그리고 울리는 드럼.

음악은 감정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날의 세상에는 음악적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것들이 우리의 교회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고, 음란하게 하거나 빼돌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넷째, 발음과 용어가 또한 중요합니다. 1980년대에 생겼던 경향 중에 하나는 세상적인 음악에서 여자들이 자신들이 성욕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CCM도 그 이후 5년간 세상적 로큰롤을 흉내 내려고 시도합니다. 곧 에이미 그랜트 채프맨 길리 신음 소리를 내듯이 노래하고 많은 음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리석은 여인들이 그녀를 흉내 내고 따라 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노래하는 단어들로 축복을 받게 하고 싶다면 노래는 명확하고 또렷하고 품위 있게 불려야 합니다.

찬양 인도자

이것은 음악 사역자와 찬양과 경배 팀 인도자보다 앞서 있었던 고대 직분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높이고 성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회중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음악과 회중이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노래들의 제목을 고르는 일을 맡은 지역 교회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만큼이나 찬양 예배를 인도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군중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치어리더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방문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해 매력적인 남자와 쇼맨십을 사용합니다. 어떤 교회는 소극적인 분위기에서 노래하는 기쁨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래와 지휘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무언가 육신적으로 되지 않게 하려고 침착한 태도의 사람을 원합니다.

노래를 이끄는 중요한 사역에 관해서 내가 좋아하는 인용문은 우리보다 앞서 살다가 돌아가신 한 기독교인의 한 말입니다. “주께서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역자는 그들의 삶이 무엇을 노래하는지 보여주고 있고 음악은 그의 삶에서 최소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귀하신 오직 한 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아훼'와 '야호'커넥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6	13000
75	로마서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사
- * 前 단국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 * 現 진리침례교회 담임 목사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
-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역 서

- * 척 스미스 <창세기>, <출애굽기> / 도서출판 포도원
- * L. E. 맥스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제임스 W. 닉스 <성령의 열매>, <성경적 종말론>, <창세기 주석>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엠 . 알 디한 <히브리서 연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사 무엘. 김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키스 파이프 <천년왕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D. L. 무디 <심음과 거둠의 법칙> / 라온누리

